

# 도시재생의 성공적 롤모델 '군산'

###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도시재생 선도사업 주요 현장 방문 추진 상황 점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도시재생의 성공적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손 차관은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최초 액티브로컬 프로그램의 워크숍이 진행되는 군산영화시장을 찾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군산시 원도심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이뤄낸 주민소통과 참여형 도시재생의 성과들을 보고받은 이후, 직접 편발리지 협동조합, 소풍 협동조합, 테마카페, 영화시장 등의 주요 도시재생 사업지와 다양한 근대건축물을 방문해 지역 주민공동체와 기업, 군산시가 구현한 '근대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든 도시재생의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영화시장 내 빈 점포 소유자와 소규모 창업의사가 있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이들을 조율하는 운영관리 전문조직이 한데 연결돼있는 액티브로컬 형식의 자생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액티브로컬 in 군산'의 워크숍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액티브로컬 방식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최초 액티브로컬 프로그램의 워크숍이 진행되는 군산영화시장을 찾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도시재생 분야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팀을 '마스터'로 초청하여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템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을 돕고 참가자와 마스터를 매칭하여 전문성과 멘토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된 시간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액티브로컬' 도시재생 운영방식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액티브로컬은 점포 소유주를 대신하여 운영전문조직이 자산을 위임 받아 관리하고 점포 창업자의 수익을 소유주와 함께 분배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통합운영관리 형태로써,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유연한 공간 및 콘텐츠 구성을 통해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운영 방식이다.

한편, 군산시는 월명동 일원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외에 시 전체를 대상으로 쇠퇴건과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대비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여건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농업 리더 양성 농업·농촌 발전 기여

###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학' 전국 농업인대학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익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4일 익산시(시장 정현율)에 따르면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대학이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전국 농업인 대학 평가 발표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우수기관 평가는 전국 156개 시군의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향상도, 교육과정운영 등 서류

심사와 역량평가, 현장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익산농업인대학은 2008년에 개교해 작년까지 27개과정 8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지역내 선도농업인 배출의 산실로 인정 받으며, 농업리더를 양성해 익산 농업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맞춤형 교육설계로 재배 기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생산은 물론 유통, 마케팅, 가공, 체험까지 아우르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

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농업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기 익산농업인대학은 올해 4개과 120명을 대상으로 1여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12월 1일 수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24일 관내 4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산대학교박물관 조명일 조사연구팀장을 초청하여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로 평생교육관에서 진행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의 군산학(郡山學)에 대한 역량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내년 1월 개봉 예정인 고군산연결도로 현장을 방문해 세계해상교량 및 VR 가상현실 등을 체험하며 군산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65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중이며, 200여개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국 친환경농산물품평회 익산 학교급식 공급 '유기농 사과' 대통령상 수상

익산지역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사과가 전국 최고 유기농 농산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4일 익산원에농협공공급식센터(센터장 이형수)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익산지역 82개 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사과'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곡류 71점과 과일류 11점, 채소류 73점, 가공식품 108점 등 모두 263점의 전국 내로라하는 유기농 농산물과 자용을 겨워 최고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전국 최고 유기농 농산물을 가리는 이번 품평회는 (사)전국친환경농협협의회와 농협경제지주,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다.

익산원에농협공공급식센터는 이번 대통령상을 받은 유기농 사과를 익산 지역 초중고 82개교에 매일 2천kg가량 공급하고 있다.

이형수 센터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농 농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 초청 인성 특강 실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최근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를 초청해 인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밝혔다.

특강은 한국폴리텍대학 고유의 인성교육 시스템인 '참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했다.

앞서, 권선복 초청 강사가 대표이사로서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지난해 8월 한국폴리텍대학과 학생 인성지도 및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는 지난 1년 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

스에 약 1000여 권의 도서 기증,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촉진하고 인성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행복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특강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수 독서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과 학생의 독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는 이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으며, 대회에 500여 권의 도서를 추가로 기증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소룡동, 이동복지상담실 '희망나르샤' 운영

군산시 소룡동(동장 이형석)은 지난 24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1월의 이동복지상담실 '희망나르샤'를 실시했다.

이날 '희망나르샤'는 관내 남전 주택에 위치한 남전경로당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형석 소룡동장은 "이동상담실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수

행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룡동의 이동상담실 '희망나르샤'는 매일 관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본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평균 20여건의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공서 방문을 꺼려하는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